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달장애인의 성과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 현 옥** · 김 정 현***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 Sexual Aware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University Students*

Park, Hyeonok** · Kim, Jenghyun***

요약

[목적] 이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달장애인의 성과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방법]** 이 연구에는 A시와 B시 소재 4년제 대학의 학생 307명이 참여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척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 척도를 적용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t검증, one-way ANOVA와 사후검정,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적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는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이 있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관련이 있다.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63.6%,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69.4% 예언할 수 있다. **[결론]**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 허용적이다. 셋째, 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예언할 수 있다.

주제어 :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발달장애인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gender-role stereotype, sexual awarenes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DD),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n people with DD. **[Method]** The study involved 307 university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A and B cities. Three kind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A frequency analysis, t 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ender-role stereotype and sexual awareness of people with DD are related. Second, gender-role stereotype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n people with DD are related. Third, gender-role stereotype can predict 63.6% of sexual awareness of people with DD, and can predict 69.4%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n people with DD. **[Conclusion]** First, the larger the gender-role stereotype, the lower the level of sexual awareness about people with DD. Second, the larger the gender-role stereotype, the easier it is to allow sexual violence targeting people with DD. Third, gender-role stereotypes can predict sexual awareness of people with DD,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n people with DD.

Key Words :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남부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Nambu University

*** 교신저자,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jeng-hyun@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 혹은 지배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선택할 권리로써([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된 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2]).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그 누구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성폭력을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을 매개로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인 성적 행위가 강제되는 행위 전부를 성폭력으로 본다([3]). 즉 사회적·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형법」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2]), 장애인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 및 간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4])」 제6조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해당되어 중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강력범죄 가운데 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간음 범죄는 331건(전체 강간·간음 범죄의 6.34%),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에 해당되는 범죄 중 장애인 대상 범죄는 21건(강간·강제추행 등에 해당되는 범죄 중 6.9%)에 이른다([5]).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불기소 처분 가해자는 1,502명(불기소 처분율 46.57%)이었다. 반면 동일 기간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중 불기소 처분 가해자는 29,885명(불기소 처분율 20.8%)에 그쳤는데([6]), 단순히 불기소 처분율만 두고 보더라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불기소 처분율이 두 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절반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4분의 1이 20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이라는 점이다([5]).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의 장애인 범죄 피해자는 비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2배에 달하며([7]),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여성의 49%가 성범죄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8]).

기본적으로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이므로([3]),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기 쉽다. 발달장애인은 상대방의 의도적인 성적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9]), 성폭력 상황에서 가해자가 위협을 가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방법을 모르는 등 성폭력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10], [11], [12]).

더 큰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 보호자가 성범죄 피해의 징후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성범죄 자체가 밝혀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발달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사 담당자들이 발달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10]),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기술 및 자기 옹호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증언 능력을 사법 당국이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3], [13], [14]), 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은 물론 성범죄 발생 이후의 대처와 피해 구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발달장애인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거나 친분관계를 맺음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을 애정 표현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거나(grooming), 발달장애인의 친근함의 표현을 성적인 의도 표현으로 해석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범죄의 발견과 처벌이 어려운 점도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된다([3], [10], [14], [15]).

일반적으로 성폭력에는 성욕, 분노나 조절 이상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관점, 성 문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16], [17]), 최근에는 성역할 고정관념(gender-roll stereotype)과 성폭력 허용도도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규정된 행동이나 태도를 사회·문화적으로 전수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성별의 특성에 대한 전형적인 신념이나 사회적 시각을 의미한다([18], [19], [20]).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강하게 대하는 공격적인 남성다움을 강조하고, 여성을 성 관계의 객체로 보는 남성 중심의 성역할이 팽배해 있다([21]). 이는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전가하고, 성폭력을 일종의 ‘남성다움’으로 인식하여 성폭력을 쉽게 수용하거나 허용하게 만든다([19], [21]). 즉 남성 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질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고([22]),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성폭력에 대해 관대하며([16], [19]), 성폭력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성역할 고정 관념 관련 선행 연구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일반적인 관계를 밝힌 것이지만, 발달장애인이 성 문제에 있어서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와 같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적인 상태인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학생 시기의 정서와 성역할 모델이 앞으로의 성역할과 성적 가치관 확립에 결정적이라는 점([16], [19], [22], [23], [24])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대학생들은 생리학 및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성 지식을 습득하게 됨은 물론 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가지게 되고,

성의 주체로서 양성 평등, 인간 존중, 성 윤리 등 성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다([16], [23]).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지만, 발달 단계 상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여, 자율성이 충분하지 못한 고등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대학생이 됨으로써 급격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때 성적인 욕구와 욕구의 통제 사이에서 불균형 및 성 관련 문제들을 두루 경험하기 때문이다([30]).

대학생 시기에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평등한 인식을 가지도록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도록 돕고, 발달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는가?
- 둘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예언할 수 있는가?
- 셋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예언할 수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에는 A광역시와 B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2개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7명이 참여하였다. 성별, 연령, 전공 계열에 따라 대학생의 성지식, 성에 대한 태도, 성적 자율성 등 성 관련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19], [21], [32])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별, 전공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7	%
Gender	Male	128	41.7
	Female	179	58.3
Age	20-24 years old	245	79.8
	25 years old and over	62	20.2
Major	humanities	63	20.5
	education	64	20.8
	engineering	60	19.5
	medical science	59	19.2
	arts(performing arts)	61	19.9

연구 대상 중 여학생은 179명(58.3%), 남학생은 128명(41.7%)이었다. 연령은 20~24세가 245명(79.8%), 25세 이상이 62명(20.2%)이며, 전공은 사범 계열 64명(20.8%), 인문사회 계열 63명(20.5%), 예체능 계열 61명(19.9%), 자연·공학 계열 60명(19.5%), 보건·의학 계열 59명(19.2%)이었다.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특수교육과 교수 2명(교육 경력 15년 이상), 성교육 전문가(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 12년 경력), 교육심리 전공 교수 1명(교육 경력 20년 이상)이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내용 타당도 관련된 선행연구([31])를 참고하여 2명의 전문가가 짝을 이루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도록 한 후 내용 타당도 지수(item level-content validity index; I-CVI) 0.78(78%)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내용 타당도 지수는 전문가 집단(2 그룹)의 내용 타당도 지수의 평균이다. 내용 타당도 검증 시 전문가 집단에게는 연구 도구의 가독성, 수정 필요 문항, 제외 필요 문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수정이나 제외 필요 문항이 발견되지 않은 문항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검사도구1. 성역할 고정관념 질문지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대학생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해 김동일의 성 고정관념 척도([25])를 수정·보완하여 30문항(5개 하위 요인)으로 재구성한 이혜림의 성 역할 고정관념 척도([24])를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이용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질문지의 하위 요인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직업 및 외형적 특징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의 지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으면 성역할에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성역할 고정관념 질문지의 내용 타당도는 .812이며,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onents of Gender-Role Stereotype Questionnaires

sub factor	Number	total	Cronbach's α
stereotypes about professions and appearance features	5, 8, 12, 18, 20, 21, 22, 25, 28	9	.723
stereotypes about social gender roles	6*, 10*, 15*, 17, 24*	5	.302
stereotypes about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13, 16, 19, 26, 27, 29, 30	7	.862
a stereotype of gender roles in the family	2, 3, 4, 9, 14, 23	6	.842
stereotypes about the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1, 7, 11	3	.600
Total		30	.903

*는 부정 문항으로, 역산하였음

검사도구2.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척도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대학생의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6개 하위 요인(총 42개 문항)으로 개발된 신부자([9])의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2개 하위 요인(발달장애인의 성적 특징에 대한 인지 정도,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수용 정도)의 총 14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 타당도 계수는 .79이며,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onents of Sexual Awareness Questionnaires

sub factor	Number	total	Cronbach's α
The degree of awareness of sexual characteristics	1*, 2*, 3*, 4*, 5*, 6*, 7*, 8*, 9*	9	.902
degree of acceptance of expression of sexual desire	10, 11, 12, 13, 14, 15	5	.878
Total		30	.932

*는 부정 문항으로, 역산하였음

검사도구3.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장다혜와 김수아([26])가 개발한 3개 하위 요인, 총 12개 문항의 '성폭력 허용도 척도'를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허용도 척도로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더 쉽게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허용도 척도의 내용 타당도 계수는 .81이며,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ponents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Questionnaire

sub factor	Number	total	Cronbach's α
verbal sexual violence	1, 2, 3, 4	4	.989
physical sexual violence	5, 6, 7, 8, 9	5	.979
psychological sexual violence	10, 11, 12	3	.971
Total		12	.991

연구절차

A광역시와 B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과의 승인을 구하여 학과 게시판에 설문 참여자 모집공고를 게시하였으며(연구대상의 취약성 보호를 위해 연구자 본인이 소속된 학과에는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음), 설문에 참여한 학생에게 연구보조원이 질문지를 배부·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실시 전에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 참여 및 중단이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연구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2019년 3월 1일부터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를 검증, 설문지 수정·보완 등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5월 2일까지 설문 조사 및 자료 입력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325부이며, 불성실 응답 설문지(10부)와 미응답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8부)를 제외한 총 307부(94.46%)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 19.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하고,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 차이는 t 검증과 one-way ANOVA(사후검증 포함)로 검증하였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를 예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결과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에 대한 인식 및 성폭력 허용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 특성은 <Table 5>, 연구 대상의 특성별 차이는 <Table 6>과 같다.

<Table 5> Technical Statistics (n=307)

	sub factor(main contents)	M	SD
gender-role stereotype	stereotypes about professions and appearance features	1.74	.44
	stereotypes about social gender roles	2.11	.45
	stereotypes about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1.87	.56
	a stereotype of gender roles in the family	1.78	.57
	stereotypes about the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M/F	1.99	.49
	Total	1.87	.40
sexual awareness	The degree of awareness of sexual characteristics	3.24	.64
	degree of acceptance of expression of sexual desire	3.07	.72
	Total	3.18	.63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verbal sexual violence	1.77	.54
	physical sexual violence	1.75	.55
	psychological sexual violence	1.73	.54
	Total	1.75	.54

<Table 5>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총점은 4점 만점에 평균 1.87점(SD=.40)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전체는 4점 만점에 평균 3.18점(SD=.63)으로, 대학생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 전체는 4점 만점에 평균 1.75점(SD=.54)으로 대학생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는 낮은 수준이다.

<Table 6> Gender-role Stereotype, Sexual Awareness,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by Participant's Background

			n	M(SD)	t or F
gender-role stereotype	sex	Male	128	1.97(.41)	3.887***
		Female	179	1.79(.37)	
	age	20~24 years old	245	1.83(.41)	-3.306**
		25 years old and over	62	2.01(.28)	
	major	humanities	63	1.82(.48)	1.081
		education	64	1.81(.34)	
		engineering	60	1.89(.48)	
medical science		59	1.92(.39)		
arts(performing arts)	61	1.91(.37)			
sexual awareness	sex	Male	128	3.43(.86)	6.126***
		Female	179	3.00(.29)	
	age	20~24 years old	245	3.16(.63)	-1.010
		25 years old and over	62	3.25(.66)	
	major	humanities	63	3.03(.61)	1.857
		education	64	3.28(.35)	
		engineering	60	3.24(.75)	
medical science		59	3.25(.77)		
arts(performing arts)	61	3.10(.60)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sex	Male	128	1.82(1.59)	.614
		Female	179	1.70(1.52)	
	age	20~24 years old	245	1.68(1.48)	-1.519
		25 years old and over	62	2.04(1.76)	
	major	humanities(Hu)	63	1.52(1.28)	7.178*** Ed<Hu Ed<En Ed<MS Ed<PA
		education(Ed)	64	1.01(.02)	
		engineering(En)	60	1.94(1.70)	
medical science(MS)		59	2.16(1.82)		
arts(PA: performing arts)	61	2.19(1.8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과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연구 대상 학생의 성별($t=3.887$, $p=.000$)과 연령($t=-3.30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전공별($F=1.081$, $p=.366$)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고, 25세 이상의 연령 집단이 24세 이하 연령 집단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연구 대상 학생의 성별($t=3.887$,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t=-1.010$, $p=.001$)과 전공($F=1.857$, $p=.366$)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는 연구 대상 학생의 성별($t=.614$, $p=.540$)과 연령

($t=-1.683, p=.093$)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전공별($F=7.178, p=.000$)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 이를 Bonferroni 방법으로 사후검증 한 결과, 사범 계열과 인문사회 계열의 평균 차는 .51(유의확률=.024), 사범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의 평균 차는 .22(유의확률=.001), 사범 계열과 보건·의학 계열의 평균 차는 1.16(유의확률=.000), 사범 계열과 예체능계열의 평균 차는 1.19(유의확률=.000)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다중범위 사후검정 방법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집단을 동일 집단으로 묶었을 경우에도 학생의 전공 계열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의 통계적 차이가 크고, 사범계열 학생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가 낮았다.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으며,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의 상관관계는 <Table 8>과 같다.

<Table 7> Relation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 and Sexual Awareness of D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1						
	② .503**	1					
Gender-Role Stereotype	③ .539**	.593**	1				
	④ .337**	.499**	.871**	1			
	⑤ .297**	.122**	.574**	.625**	1		
Sexual Awareness about	⑥ .388**	.088	-.272**	-.447**	-.412**	1	
DD	⑦ .259**	-.006	-.387**	-.535**	-.458**	.762**	1

* $p<.05$, ** $p<.01$

① stereotypes about professions and appearance features, ② stereotypes about social gender roles, ③ stereotypes about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④ a stereotype of gender roles in the family, ⑤ stereotypes about the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M/F, ⑥ degree of awareness of sexual characteristics, ⑦ degree of acceptance of expression of sexual desire

<Table 7>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하위 요인인 직업적·외형적 특징 요인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지 수준 및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 수용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성역할 고정 관념의 하위 요인인 사회·심리적 특성, 가정 내 성 역할, 남녀의 지적 특성 요인은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지 수준 및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수용 요인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8> Relation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bout D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Gender-Role Stereotype	②	.503**	1					
	③	.539**	.593**	1				
	④	.337**	.499**	.871**	1			
	⑤	.297**	.122*	.574**	.625**	1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bout DD	⑥	.626**	.533**	.159**	-.071	-.090	1	
	⑦	.623**	.579**	.229**	-.008	.018	.971**	1
	⑧	.645**	.572**	.192**	-.059	-.068	.981**	.986**

* $p < .05$, ** $p < .01$

① stereotypes about professions and appearance features, ② stereotypes about social gender roles, ③ stereotypes about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④ a stereotype of gender roles in the family, ⑤ stereotypes about the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MF, ⑥ verbal sexual violence, ⑦ physical sexual violence, ⑧ psychological sexual violence

<Table 8>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하위 요인인 직업적·외형적 특징, 사회적 성역할,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언어적, 물리적, 정신적 성폭력)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클수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더 쉽게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2. 성 인식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예언력

성역할 고정관념 요인의 발달장애인의 성 인식에 대한 예언력을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독립변수로,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직업 및 외형적 특징, 사회적 성역할, 사회·심리적 특성, 가정 내 성역할, 남녀의 지적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Effect of Gender-Role Stereotype on Sexual Awareness about DD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VIF	R2	$\Delta R2$
Sexual Awareness about DD	(Constant)	3.445		30.610	.000			
	gender roles in the family	-.585	-.525	-11.585	.000	1.712	.260	.258
	professions & appearance features	.913	.628	16.956	.000	1.144	.577	.574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MF	-.410	-.314	-7.026	.000	1.665	.636	.633

* $p < .005$

<Table 9>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예언할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은 가정에서의 성역할, 직업·외형적 특성, 남녀의 지적 특성 요인이며,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63.6%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 계수들은 유의확률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β 계수로 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직업·외형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의 지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순이며, 직업·외형적 특성과는 양의 방향으로, 가정에서의 성 역할과 남녀의 지적 특성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3.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예언력

성역할 고정관념 요인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허용도에 대한 예언력을 알아보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독립변수로,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허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Effect of Gender-Role Stereotype 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bout DD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	VIF	R2	$\Delta R2$
	(Constant)	-4.402		-12.387	.000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bout DD	social gender roles	2.299	.676	13.565	.000	1.846	.338	.336
	professions & appearance features	1.156	.326	7.363	.000	1.460	.539	.515
	gender roles in the family	-1.369	-.604	-10.717	.000	2.359	.694	.688

* $p < .005$

<Table 10>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예언할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은 사회적 성 역할, 직업·외형적 특성, 가정에서의 성 역할 요인이며, 이 요인에 의해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허용도를 69.4%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 계수들은 유의확률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β 계수로 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직업·외형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순이며, 이 중 가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이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면 성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된다는 강차선과 박정환의 연구([19]),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혜림의 연구 결과([24])와 일치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사람이 발달장애인의 성 문제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달장애인은 적절한 성적 접촉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의 성적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11], [15])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 표현을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3], [10]).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표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폭력의 대상으로서의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역할 평등을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이해와 연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더 쉽게 허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다는 송옥주의 연구([23]), 강차선과 박정환의 연구([19]), 이혜림의 연구([24])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남성 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폭력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21]), 여성의 명백한 거부 표시가 없으면 남성들은 성폭력이 성립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27]), 성폭행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방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21], [28])은 발달장애인 대상의 성폭력과 성범죄 예방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클수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발달장애 여성의 잘못된 성적인 행동의 표현 때문인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도 허용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허용도를 예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에 남녀의 직업 및 외형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의 지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허용도에는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가정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직업·외형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남성 중심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에 대한 무시와 성폭력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진다는 김애리와 박정열의 연구([22]),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피해가 적다는 강차선과 박정환의 연구([19]) 결과와 일치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범죄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양성평등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성역할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사이버 음란물 접촉 빈도가 높으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19]), 최근 성폭력의 형태가 온라인을 매개로 진행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5], [15])과 성폭력이 성의 상업화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29])을 감안하면 청소년기의 음란물 및 성범죄 노출과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허용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쳤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과 사회·문화적 배경과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다양하게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탈피하여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표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1] Park, H. (2009). Articles : A critical study on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21*(3), 229-252.
- [2] Yoon, D. (2012).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from criminal law perspectiv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3]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Manual for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Seou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4]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Retrieved June 7, 2019 from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
- [5]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8). *Korean police crime statistics in 2017*. Retrieved July 1, 2019 from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
- [6] The Kyunghyang Shinmun (2018). One out of every three disabled sex offenders will not be prosecuted. Retrieved June 1, 2019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71039001&code=940100.
- [7] Harrell, E. & Rand, M. R. (2010). *Crim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2008*.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8] The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2017). Data collection: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Retrieved May 11, 2019 from www.ojp.usdoj.gov
- [9] Shin, B. (2014). A study on sexual percep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s comparison between living facility and living parents together.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 [10] Ryu, W. (2018). A study on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of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National Open University.
- [11] Galar, G., Butler, J., & Iacono, T. (2004). The assessment of sexual knowledge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9*(4), 350-365.
- [12] Barger, E., Wacker, J., Macy, R., & Parish, S. (2009). Sexual assault prevention for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7*(2), 249-262.
- [13] Yang, S. (2016). A study on analysis of criminal offenses by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14] Keity, J. & Connelly, G. (2001). Making a statement : An exploratory study of barriers facing wom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when making a statement about sexual assault to police. *Disability & Society, 16*(2), 273-291.
- [15] Kim, J., & Park, H. (2016). A study on attitude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s sexual issu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4), 79-102.
- [16] Shim C., Lee, Y, Oh, S. (2012).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 in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8*(2), 117-125.
- [17] Shin, S. (1997). A study on the date rape propensit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ate rape of male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the male college students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2*, 181-211.
- [18] Lee, S. (1999). Development of a rape myth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3*(2), 131-148.
- [19] Kang, C., & Park, J.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on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tereotypes of gender role and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ability: Surveying residing in Jeju.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273-279.
- [19] Jung, Y.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xual addiction and rape myths and rape acceptability-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21] Koh, H. (2006). An analysis of rape case perception difference: with special to sex-role stereotype, rape myths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22] Kim, A., & Park, C. (2008). The influence of gender-role related attitudes to the acceptance of the rape my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1), 98-106.
- [23] Song, O. (2016). The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s on perceptions of sexual violence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xual attitudes and violence permiss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Chodang University.
- [24] Lee, H. (2019). The effec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role stereotype on sexual assertiv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25] Kim, D. (1991). Korean gender stereotypes. In Kim, D., *Sociology of Sex*. Seoul: Munumsa.
- [26] Jang, D., & Kim, S. (2018). *A Study on the Punishment and Control of Online Sexual Violence Crime*.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27] Shin, S. (2001). The dilemma of the composi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Women and Society*. Seoul: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 [28] Koh, S., Yang, J., & Lee, S. (2004). Etiology of sex offences and intervention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0*, 117-146.
- [29] Kim, E. (2000). *A Study on the Korean Sexuality and Sexual Violence*.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30] Kim, E. Y., Kim, E. I., Kim, H. W., Wi, D. H., Lee, K. M., Jo, H., Chung, S. A., & Choi, H. J. (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autonom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45*, 103-116.

- [31] Moon, S. B. (2011). *Successful dissertations and theses: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guide to content and process*. Seoul; Hakjisa.
- [32] Hwang, E. M. (2009).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sity, Dajeon.